

조선의 근대지식인으로서 김옥균의 형상화에 관한 연구

- 아키타우자쿠(秋田雨雀)의 <金玉均의死>와
오사나이카오루(小山内薫)의 <金玉均>을 중심으로

김현철*

performancekim@gmail.com

Contents

1. 머리말
2. 문제적인 인물 김옥균에 관한 논쟁
3. 우울한 지식인으로서 김옥균의 형상화
4. 맺음말

Abstract

本稿の目的は、日本の劇作家たちが金玉均に関心を持った理由を具体的に明らかにするところにある。特に1920年代、日本で金玉均がどのような人物として評価され、当時金玉均がどのような価値を持っていたかについて考察した。分析の対象とした作品は秋田雨雀の<金玉均の死>(1920年)と小山内薫の<金玉均>(1926年)である。

本稿で分析した結果は次のとおりである。秋田雨雀の<金玉均の死>は冷酷な時代状況、亡命政治家としての孤独感、そして悲劇的な死に焦点が当てられた。つまり、秋田雨雀は自分が生きていた現実の矛盾と不条理を念頭において、知識人として感じていた孤独感と憂鬱などを金玉均に投影して表したのである。小山内薫の<金玉均>も金玉均を通して同時代の問題意識を表そうとした。彼は作品の中で、矛盾と不条理を作り出す主体を絶対的な助力者であった日本の外交官に設定した。小山内薫は日本の公使である松山を信頼できない浅薄な人物として作り上げ、最も信頼できる対象さえも信頼できない悲劇的な状況を描き出した。

このように秋田雨雀と小山内薫が描き出した金玉均は、単なる植民地である朝鮮の知識人ではなかった。金玉均という朝鮮の近代知識人の中に自分たちの姿を投影させ、日本の知識人たちが感じていた不安と憂鬱さを同時に表現しようとしたのである。

Key Words : 金玉均, 憂鬱な 知識人, 亡命客, 時代意識, 自己矛盾

* 東北大学, 専任講師

1. 머리말

김옥균(金玉均, 1851~1894)은 한국 근대사를 대표하는 개화 사상가였으며, 동시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지식인이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천재로 불릴 정도로 재주가 뛰어난 소년이었다. 당시 세도가였던 김병기(金炳基)는 가난한 향반(鄕班)의 자제였던 김옥균을 양자로 받아들여, 가문을 이어나갈 후계자로 삼았다. 명석한 김옥균은 양부 김병기 밑에서 정계진출을 위한 기본적인 소양을 쌓아나갔고, 스무 살이 될 무렵에는 오경석(吳慶錫), 박규수(朴珪壽), 유흥기(劉鴻基) 등의 개화사상에 영향을 받아 개화당의 중심인물로 성장하였다.¹⁾ 그러던 중, 1884년 갑신정변(甲申政變)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여, 근대적인 국가체제를 갖춘 새로운 조선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갑신정변은 실패로 끝나고, 김옥균은 망명자로 전락하여 도망치듯 일본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다. 일본에서 보낸 9년간의 망명생활도 그의 기대와 달리 냉대와 억압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조선 정계로 복귀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중국 상해에서 홍종우의 총에 맞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

이런 파란만장한 김옥균의 삶에 대해서 처음으로 문학적 관심을 가진 극작가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이었다. 현재까지 발견된 자료로는, 아키타우자쿠(秋田雨雀)의 <金玉均의死>(1920년)가 최초의 희곡작품이고, 그 다음으로는 오사나이카오루(小山内薫)의 <金玉均>(1926년)이 있다.²⁾ 그 이후, 김진구의 <대무대의 붕괴>(1929년)가 발표되었다. 아키타우자쿠(秋田雨雀)와 오사나이카오루(小山内薫)는 조선의 지식인이었던 김옥균을 주인공으로 하여, 당시 근대지식인들이 갖고 있던 고민과 갈등을 극적으로 형상화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金玉均의死>는 식민지 조선에도 곧바로 소개되어 큰 반향을

1) 신용하(慎鏞廈)(1985) 「金玉均의 開化思想」, 『동방학지』46·47·4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pp.158~161

2) 앞으로 본격적인 자료 발굴이 이루어지면, 더 많은 작품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 논문은 희곡 텍스트의 선후관계나 영향관계에 중심을 두기 보다는 아키타우자쿠(秋田雨雀)와 오사나이카오루(小山内薫)가 왜 김옥균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를 어떠한 인물로 형상화 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국내작가들에 의해서 창작된 김옥균관련 작품들과 상관관계를 밝히는 선행 작업으로서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불러 일으켰는데, 이 작품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김옥균과 갑신정변이 중요한 역사극의 모티프(motif)가 되었다.³⁾

아키타우자쿠(秋田雨雀)의 <金玉均의死>가 식민지 조선에 널리 알려진 계기는 백악(白岳) 김환(金煥)에 의해서이다. 김환은 1920년 7월 『창조』에 <金玉均의死>를 <김옥균의 죽음>으로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번역된 <김옥균의 죽음>을 통하여, 식민지 지식인들은 새롭게 김옥균의 삶과 시대적 상황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즉, 아키타우자쿠(秋田雨雀)의 <金玉均의死>는 식민지인의 관점으로 김옥균과 갑신정변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화두를 촉발시켰다고 할 수 있다. 즉, 외부에서 바라본 시각이 내부의 주체의식을 촉발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던 것이다.

또, 오사나이카오루(小山内薫)의 <金玉均>(1926년)은 국내 학계에 그 존재 자체만 알려져 있을 뿐,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는 작품이다.⁴⁾ 하지만, 한국의 근대극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오사나이카오루(小山内薫)의 연극사적 위치를 생각해 볼 때, <金玉均>에 대한 연구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왜냐하면, 식민지 연극계를 이끌어 갔던 극예술연구회(劇藝術研究會)가 이상적인 모델로 삼고 있던 단체가 바로 오사나이카오루(小山内薫)의 축지소극장(築地小劇場)이었기 때문이다.⁵⁾ 축지소극장(築地小劇場)은 일본연극사에서 후기 신극

3) 김미도는 갑신정변을 소재로 한 역사극을 논의하면서, 김진구의 <大舞台의 崩壞>(1929), 오영진의 <東天紅>(1973), 오태석의 <도라지>(1994) 등이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갑신정변과 김옥균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김미도(1996), 「갑신정변 소재 회극 연구」, 『한국연극학』8, 한국연극학회, pp.69~72

4) 오사나이카오루(小山内薫)의 <金玉均>(1926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마정희의 논문이 있기는 하지만, 이 논문의 초점은 <金玉均>의 작품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사나이카오루(小山内薫)의 정치·사회적 관심이 나타난 작품의 예로서 <金玉均>을 제시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결국, 지금까지 <金玉均>의 텍스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극적 완결성이나 가치에 대해서는 제대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馬政熙(1996), 「小山内薫의 作品<金玉均>に関する研究」, 『Performing Arts Studies(舞台芸術研究)』5, 日本大学大学院芸術学研究科舞台芸術専攻.

5) 축지소극장과 극예술연구회의 영향관계는 아래의 논문을 참고하면, 더욱 자세히 이해할 수 있다. 이상우(1998), 「홍해성 연극론에 대한 연구」, 『한국극예술연구』8, 한국극예술학회. 김재석(2001), 「일본의 <축지소극장>이 한국연극에 미친 영향 연구」, 『어문학』73, 한국어문학회. 神永光規·馬政熙(2003) 「韓国新劇運動に与えた築地小劇場の影響-洪海星を中心に」, 『日本大学精神文化研究所紀要』34 日本大学精神文化研究所. 김현철(2007), 「축지소극장의 체험과 홍해성 연극론의 상관성 연구」, 『한국극예술연구』26, 한국극예술학회.

운동이 시작되는 계기를 마련한 소극장이었으며, 그 핵심적인 운영자이자, 지도자가 바로 오사나이카오루(小山内薫)였다.⁶⁾ 한일양국에서 근대극 운동의 선구자로 인정받았던 오사나이카오루(小山内薫)가 김옥균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과연 어떠한 작품을 만들었는가라는 문제는 한일 비교연구학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지식인들이 김옥균을 통하여 조선의 근대지식인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1920년대 일본에서 김옥균은 어떠한 인물로 평가되었으며, 당시 김옥균은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김옥균의 문학적 해석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김옥균의 역사적 해석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김옥균의 역사적 평가는 여전히 논쟁이 끝나지 않은 현재진행형의 문제로 남아 있다. 김옥균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일만큼 긍정론과 부정론으로 갈라져 있다. 즉,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이자 행동하는 개화 지식인이라는 평가와 일본 침략정부에 결탁한 친일파라는 평가가 대립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김옥균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들은 대부분 비운의 선각자로 형상화하는 경향이 우세하다. 또한, 이러한 원인을 제공한 작품으로 아키타우자쿠(秋田雨雀)의 <玉均の死>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식민지란 시대상황 속에서 김옥균이 반복 재생산되는 계기를 <金玉均の死>가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金玉均の死>의 가치를 해석한 연구자는 공임순이다. 공임순은 희곡, 영화, 유성기 음반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김옥균의 이미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김옥균이 끊임없이 반복·굴절되면서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생산해내었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특정이데올로기란 김옥균을 죽인 것은 조선인이며, 이러한 형제살해라는 죄의식은 피지배자의 저열함과 모자람을 강조하여, 결국 내부의 식민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것이다.⁷⁾ 즉, 공임순의 연구는 식민지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김옥균의 창작물 사이에 존재하는 교묘한 연결고리를 밝힌 매우 독특한 연구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독창성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과연 아키타우자쿠(秋田雨雀)의 <金

6) 河竹繁俊(1959), 『日本演劇全史』, 岩波書店, p.1066

7) 공임순(2005) 『식민지의 적자들』, 푸른역사, 2005, pp.287~289

玉均の死>를 객관적으로 분석했는가라는 근원적인 의문이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글에서 “<김옥균의 죽음>은 아키타우자쿠 [秋田雨雀] 이라는 일본인이 창작한 것으로, 일본인에 의해 각색된 <김옥균의 죽음>이 조선에 역수입되어 처음으로 공식지면에 발표되었다는데 상당히 주의를 요한다.”⁸⁾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즉, 처음부터 아키타우자쿠(秋田雨雀)를 제국주의라는 적대적인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주체로서 규정해버렸다. 이 지점에서 연구자 스스로가 가치중립적인 시각을 던져 버리고, 왜곡된 시선으로 <金玉均의死>를 바라보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아키타우자쿠(秋田雨雀)의 <金玉均의死>와 오사나이카오루(小山内薫)의 <金玉均>이 과연 식민지 지배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방법론으로는 우선, 김옥균의 역사적인 평가에 대한 규정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그리고, 역사적 평가를 염두에 두고, 아키타우자쿠(秋田雨雀)의 <金玉均의死>와 오사나이카오루(小山内薫)의 <金玉均>을 분석할 것이다. 김옥균의 역사적 평가를 점검하는 것은 두 작품 속에 나타난 김옥균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논의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아키타우자쿠(秋田雨雀)와 오사나이카오루(小山内薫)가 김옥균을 어떠한 인물로 평가했는가라는 문제는 작가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시각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작품의 구체적인 분석에서는 크게 「극적 세계의 설정」, 「등장인물의 관계와 갈등설정」, 「김옥균을 기억하는 방식」의 세 가지 관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극적 세계의 설정」은 작가가 김옥균을 둘러싸고 있는 극적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이다. 이러한 측면의 분석은 작가가 의식하고 있는 현실인식을 자연스럽게 도출해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둘째, 「등장인물의 관계와 갈등설정」에서는 등장인물들의 관계설정과 갈등의 전개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어떻게 인물들의 관계를 배치하고, 그 인물들은 그 속에서 어떤 갈등을 하고, 또 그 갈등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주요 등장인물들이 극적 전개에서 과연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셋째, 「김옥균을 기억하는 방식」에서는

8) _____ (2005), 『식민지의 적자들』, 푸른역사, 2005, p.261

주인공 김옥균을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매력적인 주인공이란 관점에서 김옥균의 형상화가 제대로 되었는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작품의 전체적인 완결성이란 측면에서 김옥균의 인물형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2. 문제적인 인물 김옥균에 관한 논쟁

김옥균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현재에도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며, 연구자들에 따라서 그 평가도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아키타우자쿠(秋田雨雀)와 오사나이카오루(小山内薫)의 작품 속에 나타난 김옥균의 특징을 좀더 선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지금까지 논쟁의 핵심이 되었던 문제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옥균에 대한 평가는 크게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평가 안에서도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지만, 김옥균의 인물형에 대한 쟁점들을 단순화하여 그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긍정적인 평가에는 「영웅적 지사(志士)론」, 「혁명적·진보적 개혁운동가론」, 「반봉건적인 부르조아 개혁운동가론」이 대표적이다. 「영웅적 지사(志士)론」은 1920년대 신문이나 잡지를 통하여, 김옥균의 영웅성을 대중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방식으로 유포되었다. 한 예로써 잡지 『개벽』의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김옥균은 어린시절부터 “천재”적인 자질을 갖춘 “세계적인 위인”이었고, “新朝鮮의 건설”을 위해 항상 “일편단심”⁹⁾으로 노력했던 영웅적인 지사(志士)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영웅적 지사론은 신문 기사 등을 통해서 재생산·확대되면서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유포되었다.¹⁰⁾ 「혁명적·진보적 개

9) 작자미상(1920), 「忠達公 金玉均 先生」, 『開闢』3, 京城:開闢社, pp.41~44

10) 동아일보는 1925년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6회에 걸쳐 김옥균의 영웅적인 면모를 부각시키는 기사를 연속적으로 게재하였다. 기사의 제목은 「鎖國의 天動일자 開化黨의 急先鋒」, 「機會는 千載一遇 一挙에 旧政打破」, 「成功도 一場春夢 内閣運命은 三日」, 「異域에서 七顛八起 悲運은 刻刻으로」, 「十一不年間亡命中 不變한 一片丹心」, 「連發하는 銃聲과 鮮血우에 先生慘屍」 등이었다. 讀者 海州 崔氏·記者 金剛道人, 「韓末巨星金玉均先生の 一生」, 『東亞日

혁운동가론」은 김옥균이 가지고 있던 사상적 측면을 높이 평가하는 관점으로, 신용하(慎鏞廈)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김옥균은 부강한 근대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사상을 가진 개화 지식인이었으며, 그의 개화사상은 한국근대사의 민족주의 사상의 원천이 되었다는 시각이다.¹¹⁾ 「반봉건적인 부르조아 개혁운동가론」은 사회주의 건설의 당위성을 확립하기 위한 유물론의 입장에서 김옥균이 주도한 갑신정변을 사회주의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부르조아 혁명’의 단계로 보는 시점이다. 이러한 논리는 주로 북한의 연구자들이 김옥균을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되었으며, 20세기초까지 이어진 반침략, 반봉건 투쟁은 모두 개화사상과 부르조아 개혁운동의 정신을 계승했다는 논리로 이어졌다. 이러한 논리를 체계적으로 받아들인 연구자는 강재언(姜在彦)이 대표적이다.¹²⁾

이와 같이 김옥균의 긍정적 평가는 주로 동기론(動機論)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옥균은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사상이란 지고지순한 선의지(善意志)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높이 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관점에는 갑신정변의 실패를 시대상황의 미성숙이나 일본측의 전술적 착오와 배신행위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즉, 실패의 원인을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외부의 문제로 전가시켜, 상대적으로 김옥균이란 인물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높이 평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둘째, 부정적인 평가에는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김옥균을 친일파(親日派)나 친일가(親日家)로 미리 규정하고, 조선의 근대지식인이 갖고 있었던 모순성, 단순성, 미개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야마베켄타로(山辺健太郎)가 이러한 주장을 펼친 대표적인 연구자이다. 그는 갑신정변을 한마디로 친일파 정부를 세우려고 했던 일본의 책략이라고 규정하였다. 즉, 김옥균을 대표로 하는 개화파가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 일본의 침략정부와 손을 잡고 사변(事變)을 일으킨 것이 갑신정변의 전모라는 것이다.¹³⁾ 이러한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와 정반대로 결과론(結果論)의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김

報』, 1925.11.10~11.15

11) _____(1985), 「金玉均의 開化思想」, 『동방학지』46·47·4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pp.227~229

12) 姜在彦(1982), 『朝鮮近代史研究』, 日本評論社, pp.112~115

13) 山辺健太郎(1960), 「朝鮮改革運動と金玉均」, 『歴史学研究』247, 歴史学研究会, p.44

옥균이 주도한 갑신정변이 실패했다는 결과에서 출발하여, 그 원인과 이유를 찾아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실패의 원인을 외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주도 세력의 미성숙이나 안일한 자세 때문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논리는 일본의 일부 역사학자들에 의해 강조되었지만, 실제로 식민지 내부에서도 자성적인 평가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광수가 박영효와 대담을 하면서, 갑신정변의 실패의 원인을 물었을 때, 박영효는 그것을 조선민족의 단결성 부족과 리더였던 김옥균의 지덕(知德)의 문제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다.¹⁴⁾

그러나, 현재 역사학계에서는 김옥균의 개화사상과 갑신정변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견해가 우세하다. 김옥균은 근대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최초의 혁명적·진보적 개혁운동을 주도하였고, 이것은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보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관점이다. 또, 갑신정변이 자율적이냐 타율적이냐의 성격 규정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했다거나 반대로 일본을 철저히 이용했다는 극단적인 논리보다는, 일본의 ‘원조’나 개화당측의 ‘의뢰’로 갑신정변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¹⁵⁾

그러면, 아키타우자쿠(秋田雨雀)의 <金玉均의死>와 오사나이카오루(小山内薫)의 <金玉均>은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 중에서 어떠한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는가라는 문제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두 작품은 긍정적인 평가도, 부정적인 평가도 아닌 제3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 영웅적인 지사도, 진보적인 개혁운동가도, 친일적인 근대지식인도 아닌,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김옥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아키타우자쿠(秋田雨雀)와 오사나이카오루(小山内薫)가 김옥균을 바라보는 관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두운 현실 속에서 스스로의 존재가치에 대해 고뇌하는 「우울한 지식인」의 모습이다. 즉, 역사학계의 시각이 19세기의 혼란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정치적·사상적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던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면, 극작가들의 시각은 역동하는 시대의 회오리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나약한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작품을 분석하면서 김옥

14) 이광수(1931), 「갑신정변 회고담, 박영효씨를 만난 이야기」, 『동광』19, pp.15~16

15) 조재곤(1998), 「김옥균-혁명가인가 친일파인가」, 『남북 역사학의 17가지 쟁점』, 역사비평사, pp.63~66

균은 왜 우울할 수밖에 없었으며, 우울함을 통해 두 극작가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3. 우울한 지식인으로서 김옥균의 형상화

(1) 동병상련의 지식인상

1) 냉혹하고 모순적인 현실상황

아키타우자쿠(秋田雨雀)의 <金玉均の死>(1920)는 김환에 의해 <김옥균의 죽음>으로 번역되었지만, 이 논문에서는 원전에 해당하는 1920년 1월 『人間』에 발표된 텍스트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¹⁶⁾ 우선 이 작품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상황을 살펴보면, 아키타우자쿠(秋田雨雀)가 설정하고 있는 극적 세계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金玉均の死>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김옥균이 죽음을 앞 둔 며칠 전부터 그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결국, 아키타우자쿠(秋田雨雀)는 김옥균이 왜 죽어야 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장면을 전개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왜 김옥균은 죽을 수밖에 없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키타우자쿠(秋田雨雀)는 김옥균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현실에서 찾았다. 작가는 김옥균이 처한 정치적 현실을 「돌아갈 곳이 없는 막다른 상황」으로 설정하였다.

金玉均：なるほど、面白いかも知れない、然し太田、お前は南洋へ行かうと思ふ
位るなら、アメリカへ行く気はないか？アメリカへ行つて百姓をするんだ……

太田：百姓？百姓をして何うするんです？

金玉均：金を儲るんだ。金が元手だ。金さへあれば面白い仕事出来るんだ。お前
が行けば私も行く。私はお前と一緒に百姓をするんだ、お前は行く気かないかね？¹⁷⁾

16) 공임순은 김환의 <김옥균의 죽음>을 <金玉均の死>의 「번안작품」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실제로 필자가 <金玉均の死>와 <김옥균의 죽음>을 비교, 대조한 결과는 완전히 일치하는 작품이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김옥균의 죽음>을 번안작품이 아니라, 「번역작품」이란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_____(2005), 『식민지의 적자들』, 푸른역사, 2005, p.261

17) 秋田雨雀(1920)、<金玉均の死>、《人間》2(1)、東京：玄文社、p.309

위의 인용문은 김옥균이 처한 「극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내용은 매우 단순하다. 김옥균을 아버지처럼 따르는 소년 오오타(太田)는 위험한 상해(上海)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안전한 일본으로 돌아가자고 애원하고 있다. 이때, 김옥균은 갑자기 화제를 돌려, 오오타(太田)가 평소에 꿈꾸던 환상의 남태평양섬(南洋)의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뜬금없이 자신과 같이 미국으로 가서, 농부(百姓)로 살면 어떻겠냐고 묻는다. 이러한 이야기는 마치 농담처럼 주고받지만, 이러한 농담 속에는 김옥균이 처한 답답한 현실 상황이 깔려 있다.¹⁸⁾ 즉, 김옥균에게는 더 이상 일본도 안전한 곳이 아닌 것이다. 망명자로서 9년간을 일본에서 생활했지만, 그것도 이제 조선과 일본의 외교적 관계 호전으로 한계점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다.¹⁹⁾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모르는 소년 오오타(太田)는 일본으로 돌아가자고 김옥균을 조른다. 이제 더 이상 김옥균을 환영하는 나라는 아무데도 없는데 말이다. 고국인 조선도, 망명지였던 일본도, 현재의 중국도 모두 김옥균에게는 위험하고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온 대안이 바로 머나먼 꿈의 땅인 「미국(アメリカ)」이다. 결국, 미국은 김옥균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낯선 나라인 동시에, 돌아갈 곳이 완전히 차단된 현실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제시하는 단어이다.

<金玉均の死>는 불안한 세계 속에 놓인 김옥균을 내세워, 그의 장렬한 죽음으로 이야기를 끝맺고 있다. 작가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인식의 한 단면이 바로 김옥균의 죽음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물론, 실제 역사에서도 김옥균이 죽음을 맞이하지만, 아키타우사쿠(秋田雨雀)가 바라보는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다. 김옥균의 죽음은 시대적 상황이 만들어 낸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18) 일본정부는 갑신정변이후, 조선정부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김옥균을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하여, 그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후쿠자와유키치(福沢諭吉)마저도 김옥균과 일정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安宇植・松本健一(1989), 『韓國の近代化と福沢諭吉』, 『知識』88 世界平和教授アカデミー, pp.172~173

19) 아라이쓰토무(新井勉)의 연구에 의하면, 조선정부는 일본정부에 김옥균의 인도를 끊임없이 요청하였다. 공식적인 요청만도 거의 10여 차례에 달했다. 결국, 明治19(1886)年 6月에는 조선과의 정치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본정부는 김옥균에게 일본에서 떠나도록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김옥균이 이 불응하자, 강제로 小笠原島, 北海道 등으로 이송시켜, 자유로운 행동을 완전히 통제하였다. 新井勉(2006), 『明治日本における政治亡命と金玉均』, 『政経研究』42(3), 日本大学法学会, pp.696~715

것이다. 그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상황을 응시하며, 그 이유를 당대현실의 모순과 한계상황에서 찾으려고 했다.²⁰⁾ 조국을 위해 큰 의지와 야망을 가진 인물이었지만, 냉혹한 현실의 벽 앞에서 마침내 그의 치열한 투쟁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허망한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키타우자쿠(秋田雨雀)가 설정하고 있는 극적 현실을 읽어낼 수 있다. 나약한 개인들이 냉혹하고 거대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맞서야 하는가가 그의 근원적인 고민이었다. 그의 자서전을 보면, 이 시기의 고민이 바로 <金玉均의死>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아키타우자쿠(秋田雨雀)는 “약소민족(弱小民族) 청년들의 고민”은 무엇이었고, 소수의 자유를 억압하는 다수와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²¹⁾ 결국, 아키타우자쿠(秋田雨雀)는 김옥균이 죽음을 통하여, 현재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냉혹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다.

2) 관계가 단절된 고독한 존재

불안하고 우울한 세계관은 김옥균을 둘러싸고 인물들의 관계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金玉均의死>에 등장하는 주요인물은 김옥균(金玉均), 홍종우(洪鍾宇), 오오타엔타로우(太田延太郎) 3명으로 압축된다. 그러나, 등장인물 중에서 김옥균과 직접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은 없다. 자객인 홍종우조차도 마지막 장면에서 총으로 저격을 할 뿐, 전개 과정에서 갈등이나 대립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즉, <金玉均의死>에서는 김옥균과 유대감을 느끼는 존재도, 적대감을 느끼는 인물도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인물의 관계설정은 김옥균을 더욱 쓸쓸하고 고독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20) 후지타다쓰오(藤田竜雄)는 1913년부터 1921년까지 아키타우자쿠(秋田雨雀)의 회곡적 경향을 「응시의 시대(凝視の時代)」로 규정했다. 이 시기에는 사회현실을 응시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고 노력했으며, 이러한 의도가 창작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藤田竜雄(1972), 『秋田雨雀研究』, 津軽書房, pp.28~29

21) 1918년 36세의 아키타우자쿠(秋田雨雀)는 본격적으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유럽민중들의 고민, 약소민족 청년들의 고민,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소수 엘리트들의 고민 등이 주된 관심사항이었다. 1920년 38세 때는 자신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압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민하였다. 秋田雨雀(1987), 『雨雀自伝』, 東京: 日本図書センター, pp.70~79

물론, 김옥균을 바로 옆에서 보좌하는 충실한 소년 오오타(太田)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오오타(太田)는 김옥균과 정신적인 유대감을 주고받는 인물이 아니다. 오히려, 김옥균이 보살피 주어야 할 철부지 어린소년에 불과하다. 이것은 오오타(太田)가 사용하는 호칭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오오타(太田)는 김옥균을 정신적인 스승으로 생각하지만, 김옥균은 그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리기를 거부한다. 그 이유는 “선생이란 말은 이제 그만해라. 나는 홍이라는 놈에게서 선생이란 말을 들으면, 영 기분이 안 좋구나.(先生はよしてお呉れ。私は洪の奴に先生つて言われると、ぞつとするんだ)”²²⁾라며, 홍종우가 사용하는 ‘선생님(先生)’ 대신에 다른 호칭을 쓸 것을 요구한다. 그 새로운 호칭이 바로 ‘아버지(アボジ)’이다. 결국 김옥균과 오오타(太田)의 관계는 아버지란 호칭으로 인해, 아버지와 어린 아들의 관계로 고정되어 버린다. 결국, 김옥균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초조를 같이 느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단절된 관계는 김옥균(金玉均), 홍종우(洪鍾宇), 오오타(太田)의 대화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金玉均 : 何に大したことはない。私は北海道にゐる時、この病氣になつたのだ、然し私の病氣の事なんか心配しないで、みんな御馳走をお食べなさい。私の病氣のことを考へたら御馳走が不味くなるよ。(笑ふ)

洪鍾宇 : 金先生は北海道で、げいしやに大變々々好かれました。私よく知つてゐます。(太田に、)金先生の御馳走、私達皆な食べます。

太田 : (笑ひながら、)後で薬をお上りなつたらいいでせう。まだ二月ほどの薬があります。²³⁾

위의 인용문은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며 농담을 주고받는 장면이다. 겉으로는 서로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홍종우가 언제 암살자로 돌변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金玉均의死>의 장면 중에서 유일하게 유머와 웃음이 넘치는 장면이 바로 이 대목이다. 그러나, 이 유일한 웃음의 장면마저도 완전히 가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오히려 더 비극성을 심화시

22) _____(1920) <金玉均의死>, 《人間》2(1), 東京: 玄文社, p.305

23) _____(1920) <金玉均의死>, 《人間》2(1), 東京: 玄文社, pp.314~315

키고 있다. 세 사람은 서로의 본심을 숨기고, 억지로 거짓된 웃음을 웃으며, 상대방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거짓웃음이 상징하듯이, <金玉均의死>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처음부터 정서적인 교류가 불가능한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면이 전개되면 될수록 인물들은 점점 더욱 차갑고 고립된 관계로 나아가 갈 뿐인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인물들의 관계가 과연 장면전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고, 각각의 캐릭터를 형상화하는데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결론부터 말하면, <金玉均의死>는 갈등 관계의 구축과 긴장조성의 방식에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옥균의 심리적인 고뇌만이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고뇌도 김옥균과 오오타(太田)의 대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오오타(太田)와 홍종우는 등장빈도에 비해, 작품에서 갈등관계를 심화시킨다거나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김옥균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상대역에 불과할 뿐이다. 즉, 등장인물을 압축하여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김옥균의 형상화에 치중한 나머지 2명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3명의 주요 등장인물 중에서 2명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인물 배치의 비효율성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결국, 갈등의 첨예한 대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말도 갑작스러운 총격 사건과 죽음이라는 돌발적인 상황으로 종결되어 버린다. 홍종우의 총탄에 김옥균이 맞아 숨을 거두는 장면은 이 작품의 클라이맥스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낯설고 어색할 뿐이다. 왜냐하면, 홍종우는 왜 김옥균을 저격해야만 했고, 김옥균은 자객인 홍종우를 왜 가까이 두었는가라는 많은 의문들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힌트나 해답도 없이 허망한 죽음으로 막을 내리기 때문이다. 오오타(太田)도 김옥균의 주검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다. 이처럼 <金玉均의死>는 김옥균의 비극적 죽음이라는 결말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물들의 갈등과 고뇌를 너무 등한시해버린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결말 자체도 극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너무 급작스럽고 허망한 죽음으로 끝나버린 것이다.

3) 망명객(亡命客)의 비극적 운명

<金玉均の死>의 희곡에서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주인공 김옥균은 「망명객(亡命客)」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김옥균의 정체성(正體性)을 함축하고 있는 설정이다. 망명객이란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 조선을 떠나 일본의 보호를 받고 있는 김옥균의 상황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그러면, 왜 김옥균은 정치적 망명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질문에 <金玉均の死>에서는 선각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金玉均 : (鋭く太田の顔を見る)どれ、その羽織をお見せ……日本に帰つたつて、何うにもならないぢやないか……深沢先生は立派な人だね、日本に深沢先生位ゐるのが三人あつたら立派なもんだけれどもね……この羽織の紋は私が意匠をしたんだよ……

太田 : アボジは深沢先生をそんなに勝い人だと思ひますか?

金玉均 : 着て見やうか? 維新の時の武士のやうだね……深沢先生は勝いとも、日本の政治家や志士などには、あの人の心持がちつとも解つてゐないんだよ……それもその筈だ、あの人は五十年位ゐる早く日本に生まれて来た人だもの……²⁴⁾

위의 인용문은 김옥균이 존경하는 인물인 「후카자와선생(深沢先生)」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다. 선각자인 후카자와선생(深沢先生)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불우한 지식인 중의 한 명이다. 그리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째는 후카자와선생(深沢先生) 같은 위대한 존재를 이해하고 인정해줄 상대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일본에 후카자와선생(深沢先生) 같은 사람이 세 명 정도 있었다면” 완전히 일본의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아쉬워하고 있다. 그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해줄 수 있는 동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고독하고 쓸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이다. 둘째는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너무 뛰어난 존재라는 것이다. “그 사람은 오십년 정도 일찍 일본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하며, 너무 시대를 앞서 태어났기 때

24) _____ (1920) <金玉均の死>、《人間》2(1)、東京：玄文社、pp.303~304

문에 동시대의 사람으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불행한 운명인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김옥균과 후카자와선생(深沢先生)이 동일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난다. 즉, 조선에서는 김옥균의 진정한 가치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고, 일본에서는 후카자와선생(深沢先生)의 가치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김옥균은 선각자로서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인들이 볼 수 없는 후카자와선생(深沢先生)의 진정한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존재의 고독감은 마치 운명처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설정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소수이고, 또한 시대 자체가 그들의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의 불행한 운명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옥균의 태도는 비극적 주인공과 닮아 있다.²⁵⁾ 한계상황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묵묵히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견디어 내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키타우자쿠(秋田雨雀)가 김옥균을 통하여 무엇을 형상화하고자 했는가가 드러난다.²⁶⁾ 즉, 김옥균의 모습은 단순히 조선의 망명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미래를 걱정하고 자기변혁의 방향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던 아키타우자쿠(秋田雨雀)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²⁷⁾ 아키타우자쿠(秋田雨雀)는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결말로 치닫는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자신의 이상을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는 고독하지만 아름다

25) 까뮈는 비극적인 절망이란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현실을 반항하며 살아가는 주인공에 관심을 가졌다. 부조리한 삶을 인식하고 쉽게 좌절하거나 자살을 선택하기 보다는, 차원높은 성실성을 가지고 끈뭇하게 무의미한 인생에 저항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에서 진정한 존재의 아름다움을 찾았던 것이다. Albert Camus 김화영역(1997) 『시지프 신화』, 책세상, pp.70~73

26) 아키타우자쿠(秋田雨雀)의 일기를 참고하면, 그는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상황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의문을 제기하였다. 특히, 1919년 9월 4일에는 조선총독의 저격사건을 듣고,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불합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一國が他の國を支配するということとはどんなにしてみても不合理きわまることだ)”고 주장하였다. 秋田雨雀(1965), 『秋田雨雀日記』第1卷、未來社、p.194

27) 카가와요시나리(香川良成)는 아키타우자쿠(秋田雨雀)가 김옥균의 죽음에 관심을 둔 것은 그의 예술적인 특이성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즉,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낙약한 자신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의도적으로 위기의 상황 속에서 고독하고 긴장된 삶을 살았던 김옥균을 부각시켜, 지식인으로서 진정한 삶을 재확인하고자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香川良成(1989) 『朝鮮をめぐる二つの視点—『金玉均の死』と『陸奥宗光』』、『悲劇喜劇』42(8)、早川書房、pp.37~38

운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개인이 아무리 높은 이상과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 냉혹한 세계와의 대결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비극적 인식도 함께 깔려 있다. <金玉均の死>의 결말도 김옥균의 죽음, 그리고 오오타(太田) 소년의 눈물로 막을 내리고 있다. 이것은 작가 아키타우자쿠(秋田雨雀)가 가지고 있는 당대를 바라보는 비극적인 세계관과도 이어져 있다. 아무리 개인이 성실한 자세로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을 바꾸기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오타(太田)가 죽은 김옥균의 시체에 후카자와선생(深沢先生)의 하오리(羽織)를 입혀주는 장면은 현실의 부조리성을 더욱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높은 이상을 갖고 현실을 개척하고자 노력했던 지식인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하고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가 생전에 존경했던 인물의 하오리를 덮어주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2) 자기모순적인 지식인의 비애

1) 불신으로 충만한 세계

오사나이카오루(小山内薫)의 <金玉均>(1926)은 갑신정변(1884년 12월 4일)이 일어나기 전인 1884년 10월 20일부터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난 12월 9일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²⁸⁾ 특히, 이 시기에 대해서 오사나이카오루(小山内薫)는 매우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²⁹⁾ 스스로가 직접 <金玉均>은, 인물의 성격을 부각시키는 작품이 아니라 당시의 일본과 주변 국가의 관계, 일본과 청국의 정세 등에 주목하여 「시대(時代)」를 표현하고자 했다고 밝히고 있다.³⁰⁾

그러므로 <金玉均>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사나이카오루(小山

28) 오사나이카오루(小山内薫)의 <金玉均>은 1926년 『中央公論』10월호에 발표되었다. 이 논문에서 인용하는 <金玉均>은 1972년 발행된 『小山内薫全集』에 수록된 작품임을 미리 밝혀둔다.

29) 오사나이카오루(小山内薫)는 <金玉均>을 쓴 배경에 대하여, 러일전쟁 이후 사회를 냉정하게 바라보기 위해 썼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작품들이 비극이 되면, 그것은 그 시대가 비극적이라는 반증이라며, 그 시대의 정서를 표현하고자 했다고 강조하였다. 小山内薫(1965) 「<森有礼>の上演」、『小山内薫演劇論全集』3、未来社、p.233

30) 小山内薫(1966) 「<金玉均>と<塵境>—本郷座と松竹座」、『小山内薫演劇論全集』4、未来社、pp.177~178

內薰)가 당시의 시대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金玉均>의 텍스트 속에서 그려지는 국제사회는 언제나 배신과 불신감으로 가득 찬 음울한 세계로 설정되어 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두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상황으로부터 시작된다. 서로 협력하고 일을 함께 도모하면서도, 진정으로 상대방을 신뢰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언제 어떻게 국제정세가 변하느냐에 따라, 우군도 적군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상대방을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金玉均>의 극적 분위기이다. 즉, <金玉均의死>에서는 김옥균이 처한 한계상황 자체로 인하여 우울한 극적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면, <金玉均>에서는 인물들간의 불신관계로 인하여 암울한 극적 분위기가 점점 심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金：いや、さうではない。船は是非とも難所を漕ぎ抜けなければならない場合がある。それが国王には分からないのだ。

井上：いや、疑ひ深いのは朝鮮人一般の天性だ。

金：いや、決してさうではない。

高木：さうではないと言ひながら、現に君は日本人を疑つてゐるのだ。

金：さうだ。だから、僕は寂しいのだ。

(金、苦しげに笑ふ。)

(一同、沈黙)³¹⁾

위의 인용문은 김옥균의 집에서 일본 공사관(公使館)의 사람들과 연회를 벌이는 장면으로, 인물들의 불신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등장인물들이 모두 술에 취하자, 그동안 숨겨두었던 본심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다. 다카키(高木), 이노우에(井上)는 김옥균과 동지적(同志的)인 결속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들이다. 이들의 공통된 목표는 개화파가 조선의 정권을 잡는 것이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조차도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김옥균은 이러한 상황을 “쓸쓸하다(寂しい)”고 표현하고 있다. 서로를 믿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싶지만 현실은 전혀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다.

31) 小山内薰(1972) 『金玉均』、『小山内薰全集』3、東京：春陽堂、pp.401~402

이러한 서로에 대한 불신감은 첫 장면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장면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고, 일본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김옥균은 “나는 일본을 의심하고 있다. 철저히 일본을 의심하고 있다.(僕は日本を疑つてゐる。飽くまでも日本を疑つてゐる)”³²⁾라고 언급한다. 일본에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일본을 불신하고 있는 안타까운 심정을 독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사나이카오루(小山内薫)는 왜 일본정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하는 주인공을 등장하도록 만들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명료하게 답변하기란 매우 어렵지만, 오사나이카오루(小山内薫)는 그것을 일본측의 책임으로 보았다. 즉, 김옥균이 느끼는 불신감과 무책임성에 대한 의구심은, 기본적으로 오사나이카오루(小山内薫)가 느끼는 감정과 동일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1927년 『劇と評論』에 발표한 「個人的戯曲と集團的戯曲」에서 오사나이카오루(小山内薫)는 대담하게도 일본 명치정부가 강조했던 「忠君愛國主義」이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³³⁾ 이처럼 오사나이카오루(小山内薫)는 사회의 패러다임을 이루고 있는 이념이나 사상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그 정당성에 대해서 서슴없이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처럼 <金玉均>의 배경으로 설정한 우울한 세계는, 작가 스스로가 바라보고 있는 동시대에 대한 인식과 매우 밀착되어 있다. 그러면, 왜 오사나이카오루(小山内薫)는 당대의 분위기를 불안과 우울함으로 가득 찬 세계로 바라보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힌트는 당시 근대극 운동의 큰 장애가 되었던 검열의 문제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근원에는 자유로운 예술적 행위를 억압하는 거대한 감시체제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³⁴⁾ 결국, 오사나이카오루(小山内薫)가 <金玉均>을 통하여 드러내

32) _____(1972) 『金玉均』、『小山内薫全集』3、東京：春陽堂、p.448

33) 小山内薫(1965) 「個人的戯曲と集團的戯曲」、『小山内薫演劇論全集』2、未来社、pp.147~148

34)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방해는 국가권력의 검열은 일본의 신극계에서도 매우 큰 문제였다. 실제로 오사나이카오루(小山内薫)도 자유극장(自由劇場)의 창립공연 작품으로 하우프트만의 <日の出前>를 공연하려고 생각했지만, 검열을 무사히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위의 만류 때문에 결국 입센의 <ジョン・ガブリエル・ボルクマン>으로 바꾸어 창립공연을 할 수밖에 없었다. 菅井幸雄(1977) 「日本近代演劇論争史6-自由劇場論争」、『悲劇喜劇』30(11)、早川書房、p.82

고자 했던 것은 조선의 갑신정변이나 개화파의 리더였던 김옥균의 인물상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金玉均>을 통하여 일본인, 그리고 일본정부의 실체를 새로운 시각에서 좀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울하고 불안한 세계관은 오사나이카오루(小山内薫)가 느끼고 있는 일본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우울함과 불안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2) 천박한 인물과 시대의 비극성

오사나이카오루(小山内薫)의 <金玉均>(1926)은 16장으로 구성된 희곡이기 때문에, 아키타우자쿠(秋田雨雀)의 <金玉均の死>(1920)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김옥균을 제외하고도, 주요인물만 20명이 등장하는 작품이다. 그러나, 이 등장인물 가운데 김옥균과 직접적인 대립관계에 있는 수구파 민씨측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첫 장면의 연회석에서 술에 만취하여 싸움을 일으키는 민영익(閔泳翊)과 민태호(閔台鎬) 정도가 유일하다. 즉, 청나라와 민씨일파는 텍스트 밖에 존재할 뿐, 주인공 김옥균과 직접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오사나이카오루(小山内薫)와 갈등을 일으키는 대상은 일본측의 협력자들이다. 특히, 협력자의 대표적인 일본공사(日本公使) 마쓰야마야스조우(松山泰藏)를 처음부터 끝까지 김옥균과 갈등하는 핵심적인 인물로 설정하고 있다.

今村：そりやあ構ひますまい。併し、金は大分閣下を恨んでゐるやうですから……

松山：会はん方が好いと言ふのか。いや、それは却つて会つた方が好い。あの男は大した経綸のある人物ではないが、國を思ふ意気が状で、為事の上にも機敏なところがある。僕はモルレンドルフの辯口に載せられて、大分彼を誤解したが、やっぱり彼は日本にとって有用の人物であることが分かつた。それに、きのふも君に話した通り、政府の方針ももうすつかり定つたのだから、今後はどこまでも彼等と親しくして行かなければならぬ。³⁵⁾

위의 장면은 마쓰야마(松山)공사가 비서관 이마무라(今村)에게 일본공관으로

35) _____(1972)『金玉均』、『小山内薫全集』3、東京：春陽堂、p.403

직접 찾아온 김옥균을 만나야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이다. 이 두 사람은 노골적으로 김옥균의 이용가치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즉, 김옥균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일본에 있어서 유용한 인물(日本にとって有用の人物)”인가, 아닌가라는 것이다. 만약, 일본에 이익이 되지 않는 인물이라면, 언제든지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마쓰야마(松山)공사가 김옥균을 만나기로 결정한 이유는 조선의 개화파가 일본정부에 이용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김옥균의 개화파와 그를 돕는 일본측 조력자들은 기본적으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즉, 두 집단은 완전히 서로 다른 동상이몽(同床異夢)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³⁶⁾ 개화파는 근대적이고 부강한 자주국가의 수립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일본측 조력자들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유리한 개화파를 도울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간의 신의나 신뢰라는 개념은 한낱 허울에 불과할 뿐이다.

이와 같이 <金玉均>에서 갈등을 만들어 내는 주요한 요인은 협력 관계에 있는 두 집단이 전혀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즉 <金玉均>의 세계는 이미 인간적인 믿음이나 신뢰가 존재하는 시공간이 아니다. 이미 확실성이라는 과거의 절대성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혼돈의 세계인 것이다. 이러한 세계에서는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누구와도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다.

결국 오사나이카오루(小山内薫)는 시대의 비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마쓰야마(松山)공사를 신뢰할 수 없는 천박한 인물로 만들어 버렸다. 김옥균이 “그런 경솔한 인물은 없어.(あんな軽率な人物はない)”³⁷⁾, “이 일은 공사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십시오.(この事は公使にも言はないで置いて下さい)”³⁸⁾, “바보같은(ばかばかしい)”³⁹⁾이라고 평가하며, 도저히 같이 일을 도모할

36) 양기웅은 김옥균과 후쿠자와의 관계를 관념적 정치인과 현실적인 이론가의 동상이몽 관계로 파악했다. 후쿠자와의 아시아연대론은 일본맹주론을 기본으로 하는 현실적 제국주의론에 지나지 않았다고 규정했다. 결국, 김옥균의 한계를 일본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조선의 개화를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다. 양기웅(2004) 「김옥균과 후쿠자와유키치-어떤 관념적 정치가와 현실적 이론가의 동상이몽」, 『한국 근대지인식의 민족적 자아형성』, 小花, pp.88~94

37) _____(1972), 「金玉均」, 『小山内薫全集』3, 東京:春陽堂, p.412

38) _____(1972), 「金玉均」, 『小山内薫全集』3, 東京:春陽堂, p.415

수 없는 최악의 인물로 단정 짓는다. 그러나, 김옥균에게 마쓰야마(松山)공사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딜레마이다. 왜냐하면, 이 천박한 인물과 같이 정변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결국, 마쓰야마(松山)공사라는 인물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일수록, 김옥균이 살아가는 있는 시대의 비극성은 더욱 부각되는 것이다.

3) 자기모순적인 불우한 지식인

오사나이카오루(小山内薫)의 <金玉均>에서 김옥균은 모든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주체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앞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김옥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와 주변 인물들은 모두 불안하기 그지 없다. 특히, 서로를 믿고 의지해야 할 인물조차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김옥균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은 외적인 요인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실제로 불안의 이면에는 내적인 요인이 더욱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내적인 문제 중에서 김옥균을 우울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 결정이란 것도 너무나도 「불완전한 결정」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즉, 완벽하지 않은 결정을 혼자서 모두 처리해야 하는 두려움이 그를 지속적으로 우울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의 주변에는 그를 보좌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물론, 같이 행동하는 동지들이 있지만, 그들은 김옥균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단순한 행동대원에 불과하다. 상황을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그것을 믿고 맡길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이다. 결국 모든 결정은 김옥균 혼자만의 몫으로 남는다. 시대의 선각자가 느끼는 고독과 불안은 모든 지식인들이 공감하는 두려움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불안감은 <金玉均>에서 끊임없이 강조되는 정서이며, 주인공 김옥균을 형상화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불안과 우울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오사나이카오루(小山内薫)는 김옥균의 「눈물」을 강조한다.

金：朝鮮をこの危急から救ふ策は、先づ第一に清國の羈絆を脱することです。それには政府の改革です。兵力の充実です。先立つものは何よりも財力です。そこ

39) _____ (1972) 「金玉均」、『小山内薫全集』3、東京：春陽堂、p.416

で、僕は実状を主上に訴へて、国債委任状を賜りました。喜び勇んで、日本へ渡つて見ると、井上外務卿の僕に対する態度が、まるで以前とは違つてゐるではありませんか。涙を吞んで亜米利加公使に縋りましたが、これもだめでした。第一銀行の澁沢さんに頼んで、たとひ豫定の十分の一でも二十分の一でも借りようとしたが、これも外務卿の許可がないからと言つて拒ねつけられました。僕の計画は悉く画餅に帰してしまつたのです。(泣く)松山さん、一體、これは誰がしたことですか。だ、誰がしたことですか。

松山：(目を閉ちて、尚沈黙を続ける)

金：僕は期せずして主上を欺いたのです。閔黨は指をさして僕を笑ひます。モルレンドルフは公然僕を国家のと毒だと主張します。僕は身の置きどころがなくて、一時東郊の別荘へ姿を隠してしまひました。その残念さ口悔しきは、いまだに忘れることが出来ません。(泣く)松山さん、一體、これは誰がしたことですか。だ、誰がしたことですか。⁴⁰⁾

위의 인용문은 김옥균이 일본에 국채를 빌리러 갔을 때 겪은 고초를, 마쓰야마(松山)에게 눈물로 호소하는 대목이다. 실제 역사에서도, 1883년 7월 김옥균은 세 번째로 일본을 방문한다. 방문의 목적은 국왕의 위임장을 가지고 국채(國債)를 모집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민씨수구파의 계약에 의해, 뮐렌도르프가 일본공사를 자신의 편으로 회유하게 된다. 그 결과 일본공사는 김옥균의 위임장이 위조된 것이라고 정부에 허위 보고를 하고, 김옥균은 국채모집에 완전히 실패하고 마는 것이다.⁴¹⁾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金玉均>에서는 자신의 처지를 걱정적으로 호소하는 김옥균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처럼 오사나 이카오루(小山内薫)가 형상화낸 김옥균은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지식인인 것이다.

그러면, 김옥균의 울음은 인물의 형상화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 이 울음은 그의 진정성과 비분강개가 함께 뒤섞인 것이며, 이렇게라도 마쓰야마(松山)공사에게 자신의 심정을 전달하고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과연 그의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가라는 것은 차후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서

40) _____(1972) 『金玉均』、『小山内薫全集』3, 東京:春陽堂, p.405

41) _____(1985) 『金玉均의 開化思想』, 『동방학지』46·47·4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p.181

로를 신뢰할 수 없는 관계에서, 약자인 김옥균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눈물로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상호 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김옥균은 원초적이고 비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고, 이러한 선택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우울할 뿐이다.

이러한 우울한 상황은 극의 결말에서 더욱 부각된다. 갑신정변의 실패로 김옥균은 어쩔 수 없이 일본에 자신의 몸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다. 그러면서도 “나는 일본인을 의심하면서도, 어쩔 수없이 일본에 의탁할 수밖에 없다. 나의 실패는 바로 이 모순에서부터 오는 것이다.(僕は日本を疑ひながら、どうしても日本に頼らずにはゐられない。僕の失敗はこの矛盾撞着から来てゐるんだ……)”⁴²⁾라는 그의 독백이 더욱 의미심장하다. 실패한 이유를 서로 신뢰하지 못한 상태에서 함께 혁명을 진행했다는 모순의 결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여전히 불신감으로 가득하지만, 다시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것이 김옥균의 운명이다. 한마디로 애증이 교차하는 모순된 상황이며, 믿지 못하는 상대와 어쩔 수 없이 동거해야만 하는 자신의 운명이 우울할 뿐이다.

이러한 모순성은 단순히 김옥균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시 작가 오사나िका오루(小山内薫)의 시대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오사나िका오루(小山内薫)는 김옥균을 통하여 당대를 살고 있는 지식인, 선각자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주인공 김옥균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지식인의 불안과 울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존재이다. 단지, 식민지 조선의 영웅이나 정치적 망명객이 아니라, 시대의 부조리에 저항하며 개혁을 부르짖으며 이상을 실현하고자 노력했던 동병상련의 지식인인 것이다. 또한, 시대의 모순과 부조리를 인식하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려면 또 현실과 어느 정도 타협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의 이중성에 한계를 느끼는 상징적인 존재로서 김옥균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42) _____ (1972) 『金玉均』、『小山内薫全集』3、東京：春陽堂、p.448

4.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의 근대지식인인 김옥균이 어떻게 형상화되었는가를 아키타우자쿠(秋田雨雀)의 <金玉均の死>와 오사나이카오루(小山内薫)의 <金玉均>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일본인에 의해 창작된 작품이란 선입견 때문에 식민지 지배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지적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작품을 분석해 본 결과, 두 작품 모두 김옥균을 우상화하여 우리 안에 무의식화되어 있는 피해의식을 자극하여, 결과적으로 식민지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킨다는 해석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었다. 왜냐하면, 아키타우자쿠(秋田雨雀)나 오사나이카오루(小山内薫)의 창작의도가 당시의 식민지 정부의 체제나 지배의 정당성을 옹호하고자 한 것은 절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김옥균이라는 식민지 개화 지식인의 고뇌와 좌절을 통하여, 현실의 모순과 부조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 <金玉均の死>에서 김옥균을 좌절시킬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 망명객으로서의 고독감, 그리고 비극적 죽음은 아키타우자쿠(秋田雨雀)가 살았던 시대적 상황과 그리 동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즉, 아키타우자쿠(秋田雨雀)는 자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자기혁신을 위해 노력했던 한 지식인의 어쩔 수 없는 죽음을 통하여, 스스로에게 과연 지식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오사나이카오루(小山内薫)의 <金玉均>에서 더욱 심화되어 나타난다. 오사나이카오루(小山内薫)도 김옥균이란 인물을 통하여, 당대의 시대상황을 묘사하려고 하였다. 그가 관심을 가진 대상은 조선의 갑신정변이나 개화파의 중심인물인 김옥균이 아니었다. 오히려 오사나이카오루(小山内薫)의 관심은 당시의 국제정치의 냉혹함과 신뢰성의 상실된 관계 자체에 있었다. 일본정부를 대표하는 외교관인 마쓰야마(松山)공사를 극단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천박한 인물로 만들어, 가장 신뢰해야 하는 대상마저도 신뢰할 수 없는 현실의 비극적 상황을 그려내고자 했다. 결국, 오사나이카오루(小山内薫)도 모순과 부조리가 난무하는 현실 속에서 지식인들은 과연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그는 <金玉均>을 통하여 시대의 모순과 부

조리에 저항하면서도, 부지불식간에 서서히 시대의 비합리성에 익숙해져 생존을 위해 자기합리화에 급급해 하는 우울한 지식인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그러므로, 아키타우자쿠(秋田雨雀)가 김옥균을 통하여 냉혹하고 모순된 현실 속에서 고독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식인의 비극적 운명을 표현했다면, 오사나이카오루(小山内薫)는 한단계 더 나아가 모순된 세계와 대립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부정적인 세계에 몰들어 자기모순에 빠져버린 지식인들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결국 두 작가가 그려낸 김옥균은 단순히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에 한정된 인물이 아니었다. 김옥균이라는 조선의 근대지식인 속에 자신들의 모습을 투영시켜, 일본의 지식인들이 느끼는 불안과 우울함을 동시에 표현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아키타우자쿠(秋田雨雀)의 <金玉均の死>(1920)와 오사나이카오루(小山内薫)의 <金玉均>(1926)이 식민지 지배 이데올로기를 합리화하고 있다는 논의는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하여 그 이후에 재생, 반복된 김옥균의 형상화가 모두 이러한 혐의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아니다. 식민지 조선에서 김옥균을 기억하고 재생하는 방식은 어느정도 식민지 지배이데올로기가 반영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아키타우자쿠(秋田雨雀)의 <金玉均の死>와 오사나이카오루(小山内薫)의 <金玉均>이 후대에 창작된 작품들과 어떠한 유사점과 상이점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공임순(2005) 『식민지의 적자들』, 푸른역사, pp.287~289
- 김미도(1996) 「갑신정변 소재 희곡 연구」, 『한국연극학』8, 한국연극학회, pp.69~72
- 김재석(2001) 「일본의 <축지소극장>이 한국연극에 미친 영향 연구」, 『어문학』73, 한국어문학회.
- 김현철(2007) 「축지소극장의 체험과 흥해성 연극론의 상관성 연구」, 『한국극예술연구』26, 한국극예술학회.
- 讀者 海州 崔氏·記者 金剛道人, 「韓末巨星金玉均先生の 一生」, 『東亞日報』, 1925.11.10~11.15
- 신용하(愼鏞廈)(1985) 「金玉均의 開化思想」, 『동방학지』46·47·4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pp. 158~161
- 양기웅(2004) 「김옥균과 후쿠자와유키치-어떤 관념적 정치가와 현실적 이론가의 동상

- 이몽, 『한국 근대지인식의 민족적 자아형성』, 小花, pp.88~94
- 이광수(1931) 「갑신정변 회고담, 박영효씨를 만난 이야기」, 『동광』19, pp.15~16
- 이상우(1998) 「홍해성 연극론에 대한 연구」, 『한국극예술연구』8, 한국극예술학회.
- 작자미상(1920) 「忠達公 金玉均 先生」, 『開闢』3, 京城:開闢社, pp.41~44
- 조재곤(1998) 「김옥균-혁명가인가 친일파인가」, 『남북 역사학의 17가지 쟁점』, 역사비평사, pp.63~66
- Albert Camus 김화영역(1997) 『시지프 신화』, 책세상, pp.70~73
- 新井勉(2006) 「明治日本における政治亡命と金玉均」, 『政経研究』42(3), 日本大學法學會, pp.696~715
- 姜在彦(1982) 『朝鮮近代史研究』, 日本評論社, pp.112~115
- 菅井幸雄(1977) 「日本近代演劇論争史6-自由劇場論争」, 『悲劇喜劇』30(11), 早川書房, p.82
- 藤田龍雄(1972) 『秋田雨雀研究』, 津輕書房, pp.28~29
- 馬政熙(1996) 「小山内薫の作品<金玉均>に関する研究」, 『Performing Arts Studies (舞台芸術研究)』5, 日本大學大学院芸術學研究科舞台芸術専攻.
- 山辺健太郎(1960) 「朝鮮改革運動と金玉均」, 『歴史學研究』247, 歴史學研究會, p.44
- 小山内薫(1965) 「<森有礼>の上演」, 『小山内薫演劇論全集』3, 未來社, p.233
- _____ (1965) 「個人的戯曲と集团的戯曲」, 『小山内薫演劇論全集』2, 未來社, pp.147~148
- _____ (1966) 「<金玉均>と<塵境>一本郷座と松竹座」, 『小山内薫演劇論全集』4, 未來社, pp.177~178
- _____ (1972) 「金玉均」, 『小山内薫全集』3, 東京:春陽堂, pp.401~402
- 神永光規・馬政熙(2003) 「韓國新劇運動に与えた築地小劇場の影響-洪海星を中心に」, 『日本大學精神文化研究所紀要』34, 日本大學精神文化研究所.
- 安宇植・松本健一(1989) 「韓國の近代化と福澤諭吉」, 『知識』88, 世界平和教授アカデミー, pp.172~173
- 秋田雨雀(1920) 「金玉均の死」, 『人間』2(1), 東京:玄文社, p.309
- _____ (1965) 『秋田雨雀日記』第1卷, 未來社, p.194
- _____ (1987) 『雨雀自伝』, 東京:日本図書センター, pp.70~79
- 河竹繁俊(1959) 『日本演劇全史』, 岩波書店, p.1066
- 香川良成(1989) 「朝鮮をめぐる二つの視点-『金玉均の死』と『陸奥宗光』」, 『悲劇喜劇』42(8), 早川書房, pp.37~38

❖ 투고일 : 2008.12. 31

❖ 심사일 : 2009. 2. 6

❖ 심사완료일 : 2009. 2. 12